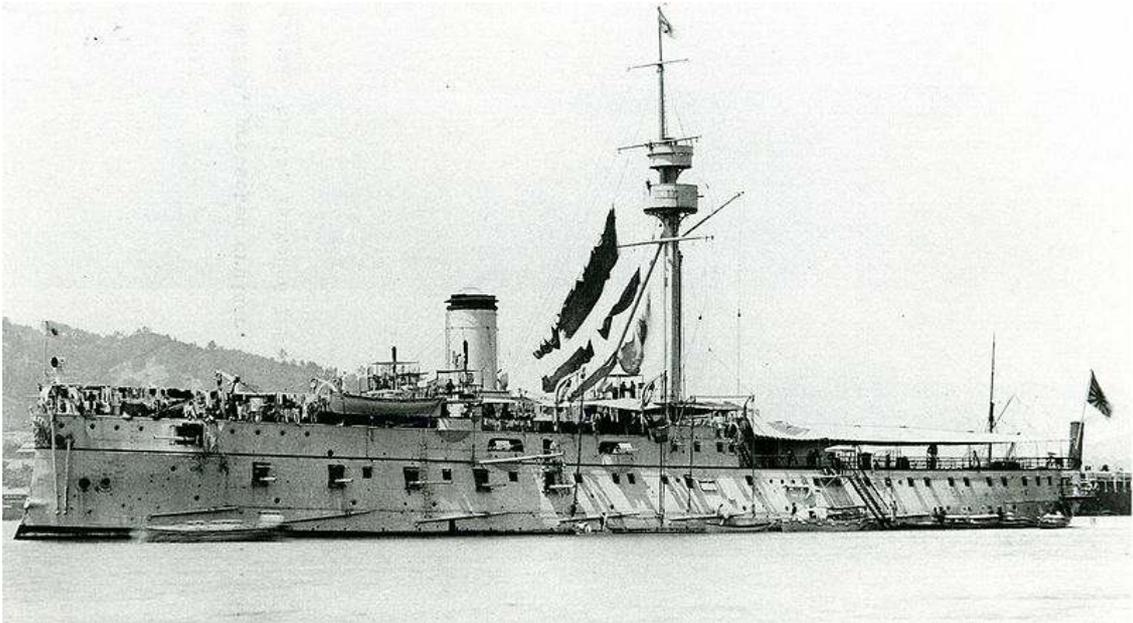


조영일 <가라타니 고진과 근현대일본문학> 7장 제4장 병이라는 의미

어쨌든 나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나 생각지도 않았던 문학 인생을 보내게 된 것은 소설 『불여귀』에서 비롯된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타나카는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자신이 인생의 낙오자라는 것이 결정적이 되었을 무렵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와 시치리 해변 조난 사건에 대해 남몰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태워왔던 원망의 불꽃이 급격히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 미치우라 간야 『시치리 해변』



회고 가름한 얼굴에 미간이 약간 좁고 뺨 부분이 흘쭍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지만 마른 체형에 늘씬하고 정숙해 보이는 인품. 이는 북풍에 한 송이 강인함을 자랑하는 매화꽃도 아니고, 아지랑이 피는 봄에 나비가 되어 나는 벚꽃도 아니며, 여름날 저녁 어스름에 어렴풋이 향기를 발하는 달맞이꽃이라고나 품평합직한 여성이다.

하지만 풀어도 녹지 않는 한 덩어리의 한은 깊이깊이 가슴속에 남았고, 밤마다 침대에서 꾸는 북양 함대가 전멸하는 꿈과 자신이 죽는 꿈을 따라다니는 것은 새하얀 술을 두른 어느 병든 여인의 모습이었다.

소식이 끊기고 석 달이 흘렀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을 것인가. 살아 있으라. 내가 그녀를 잊는 날이 없는 것처럼, 그녀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날은 없을 것이다.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다케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생각했다. 초닷새의 달이 소나무에 가려 흐릿하게 비추던 즈시에서의 어느 날 저녁. 나를 배웅하러 문까지 나와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던 그녀는 어디 있는가. 생각에 잠겨 바라보니 하얀 술을 두른 그녀가 금방이라도 달빛 속에서 걸어 나올 것만 같다.

-도쿠토미 로카 『불여귀』-



18세기에 이르러 새롭게 (사회적·지리적) 이동이 가능해지자 가치라든가 지위라든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장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것은 새로운 복장관(패션)이나 병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통해서 주장되었다. 복장(신체 외부)을 치장하는 의상과 병(신체 내부)을 장식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아에 대한 새로운 비유가 되었다.

- 수잔 손탁, 『은유로서의 병』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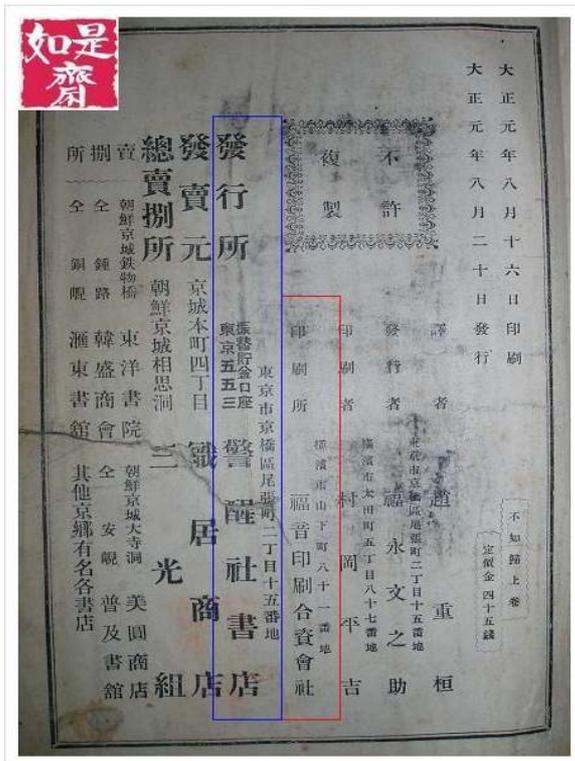
병상 여섯 자, 이것이 나의 세계이다. 이 여섯 자의 병상도 나에게서는 너무 넓다. 겨우 손을 움직여 다다미를 만질 수는 있지만 이불 바깥까지 다리를 펴서 몸을 편안하게 할 수는 없다. 심할 때에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1.5센티미터, 3센티미터조차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다. 고통, 번민, 통곡, 마취제, 얼마 안 되는 한 줄기의 활로를 죽음의 길속에서 찾아내

약간의 안락을 게걸스럽게 탐욕하는 한심함, 그래도 살아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은 있는 법이어서 매일 보는 것은 신문 잡지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마저 못 읽는 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도 많지만 읽으면 화나는 일, 속상한 일, 때로는 어쩐지 기뻐져 그로 인해 병의 고통을 잊는 일이 없지도 않다. 1년을 하루처럼, 그것도 6년 동안 바깥세상을 모르고 누워 있는 병자의 모습이란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 서론 삼아 말해 두고…….

- 마사오카 시키 「병상 여섯 자」

병 중에서도 이 병은 정말로 무서운 병이란다, 다케. 너도 알겠지만 그 왜, 도고 지사, 네가 곧잘 싸우곤 했던 애의 어머니 있지 않니, 글썄 그이가 폐병으로 죽은 게 재작년 4월이었는데, 그해 말에 말이다, 듣고 있냐?, 도고 씨도 역시 폐병으로 죽었고, 게다가 그 사람 아들 역시 폐병으로 얼마 전에 죽었던 말이다. 전부 어머니 병이 옮은 거였지. 이 얘기 말고도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말이다, 이 에미는, 다케, 이 병만큼은 조심해야지 조심하지 않았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여귀』 중에서



병원체설, 좀더 넓게 이야기하면 병의 특이 원인론은 거의 한 세기에 걸쳐 히포크라테스의 전통을 깨뜨렸다. 각각의 병은 명확한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원인이 되는 작용 인자를 공격함으로써, 또 그것이 불가능하면 신체의 병든 부분에 치료를 집중시킴으로써 그것을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학설의 핵심이다. 이것은 전체로서의 환자, 나아가 환자의 환경 전체를 중시한 고대 의학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파스퇴르가 파리 의학회에서 자신의 학설을 발표했을 때 일어난 논쟁에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다.

-르네 뒤보스, 『건강이라는 환상』 중에서

결핵이 한참 유행할 동안에는 가장 감수성이 강한 사람들은 아직 젊을 때 죽기 쉽기 때문에 자손도 남기지 않는다. 이에 반해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고도의 자연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저항력을 자손에게 전한다. 현재의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결핵 사망률의 저하는 부분적으로는 감수성이 강한 가계를 소멸시켜 버린 19세기의 대유행에서 일어난 도태 작용의 결과이다.

-르네 뒤보스, 『건강이라는 환상』 중에서

사람들이 번개를 섬광에서 떼어내 섬광을 번개라고 불리는 주체의 작용이며 활동이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 도덕 역시 강인함을 강인함의 표현에서 분리시켜 자유자재로 강인함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근간이 강자의 배후에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근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용, 활동, 생성의 배후에는 아무 <존재>도 없다. <작용자>라는 것은 단순히 상상에 의해 작용에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작용이 전부인 것이다. 실제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번개라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이것은 작용의 중복, 작용=작용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어서 동일한 사물을 먼저 원인으로 앞세우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결과로 내세우는 것이다. 자연 과학자들은 <힘은 움직이도록 만든다, 힘은 원인이다>라고들 하지만 이 역시 훌륭한 표현은 아니다. 그들은 냉철하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데도 오늘날의 과학 전체는 언어의 유혹에 발목을 잡혀 <주체>라는 악마적 전복의 미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도덕의 계보학』 중에서

거듭 말하자면 불교는 백 배나 냉정하고 성실하며 객관적이다. 불교에서는 나의 고통을, 고통을 받아들이는 나의 능력을, 죄의 해석에 의해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불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고통스럽다>고. 이에 반해 야만인(기독교도)에게 고통 자체는 전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야만인은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본능은 오히려 고통을 부인할 것을, 남몰래 고통을 참아낼 것을 지시한다.) 여기서 <악마>라는 말은 하나의 은혜였다. 강력하고 두려워해야 할 적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한 적으로 인한 고통을 수치로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니체, 『반 그리스도』 중에서

일본의 당시 의료 제도는 외국과 달라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가 되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눈에는 이 제도가 이상하게 비쳐, 이미 무로마치(室町)시대에 루이스 프로이스가 이를 지적했다. 샤를 보어도 일본의 의사는 외과의 겸 약재상 겸 한방학자라고도 말해, 일본의 의사가 직접 조제하고 직접 병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것을 기이하게 느끼고 있었다.

툰베르크는 일본 의사 중에는 내과의와 외과의 이외에 해초를 사용하는 뜸 치료사, 침을 놓는 침 의사, 안마를 전문으로 하는 안마 의사가 있다고 했으며, 그것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특이한 외침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안마사 역시 의사라고 했다. 그중에서 내과가가 가장 격식을 갖추고 있었고, 학식도 있었다.

-하토리 도시가즈, 『에도시대 의학사 연구』 중에서